



한국의 보물, 해인<39>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

(지난호에 이어서)

『순조실록』 순조 26년(1826) 10월 27일 을해일조를 보면, 충청도 청주에서 검거된 정상채(鄭尙采), 박형서(朴亨瑞), 이규여(李奎汝), 신수량(申秀亮) 등은 흥경래와 관련된 해도진인설(海島眞人說)을 주장했다.

정상채는 의술과 풍수 등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환묘문(幻妙門)』과 같은 비기(秘記)를 이용하여 호풍환우(呼風喚雨)하는 신이(神異)한 술책을 지닌 인물로 알려졌는데, “흥경래는 죽지 않았다”, “병화(兵禍)가 해도(海島)에서 일어날 것인데, 진인(眞人)은 홍하도(紅霞島)에 있으며, 이름은 정재룡(鄭在龍)이다”, “도당(徒黨)을 모아서 명첩(名帖)을 도중(島中)에 써서 보냈다”, “군복(軍服)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포를 사 왔다”, “해성(隄星)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천구(天狗)가 은하(銀河)를 범했다.” 등의 내용을 진술했다. 또 정상채는 홍하도는 “수로(水路)가 4천 리이며, 돌이 많고 길이 매우 험해 사람이 통과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출입자가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남적출현설(南賊出現說)’과 ‘복주과전설(福州播遷說)’을 내세우기도 했다. “서적(西賊)이 나온 이후에는 마땅히 남적(南賊)이 날 것이고, 진인이 해도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서적은 흥경래를 가리킨다.

또 박형서가 정상채의 말을 인용한 진술에서 “지금 마땅히 신도국(新都國)을 건설해야 하기에, 해도(海島)에서 정씨(鄭氏)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하도에서 군사를 기르고 있는 정재룡이 먼저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고, 다음에 조선(朝鮮)을 정벌하여 복주(福州)로 파견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서는 검거되어 있던 상태에도 청주의 관장에게 투서했는데, ‘흥경래불사설(興景來不死說)’, ‘소선풍(小旋風)’, ‘대야아(大爺爺)’, ‘외원병(外援兵)’ 등의 와언(訛言)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정상채는 진인(眞人)을 보좌할 인물로 『정감록』에 등장하는 배가장(裴哥將)과 ‘변가상(卜哥相)’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명첩과 군복과 관련되어 책임을 맡았던 박형서에 대한 정부 측의 최종 처분인 결안(結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박형서는) 아주 간특하고 지극히 요사한 정상채와 체결하여, 요서(妖書)를 전해 익혀 남의 재물을 속여서 취했으며, 흥언(興言)을 지어내어 인심을 선동시켰다. 감히 해도(海島)의 진인(眞人)이라느니, 장차 병화(兵禍)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지어내어 유혹하고 안팎으로 화응(和應)하였다. 종이를 주면서 명첩(名帖)을 쓰도록 권하여 도중(島中)에 보낸다고 하였다. 돈을 거두어 백목(白木)을 사라고 요구하면서 군복(軍服)을 만든다고 했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단안(斷案)이었다. ... 『순조실록』 순조 26년(1826) 10월 27일 을해일.

순조 26년(1826)에 일어난 정상채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인 오한경(吳漢敬)은 “진인(眞人)이 백로(白鵝)를 변화시켜 호랑이를 만든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상채, 박형서, 오한경 등은 “세월이 백룡(白龍)을 만나면 사람은 어디로 가며, 해가

뱀 꼬리를 만나면 반드시 흉악한 무리가 잔멸(殘滅)될 것이다. (세우백룡인하거(歲遇白龍人何去), 년봉사미필흉잔(年逢蛇尾必凶殘))”라는 시를 서로 전하면서, 조선왕조의 멸망이 박두하였다는 이야기를 은밀히 퍼뜨렸다.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은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많은 변란(變亂)에서 그 사건을 반체제(反體制) 성향으로 추동해가는 하나의 사상체계 역할을 행하였다. 진인출현설이 이처럼 각종 변란에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에 현실 부정과 새로운 세계의 구현이라는 혁명적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진인(眞人)이 해도(海島)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현재의 왕조(王朝)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라는 이른바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에 응축되어 있으며, 이는 변란(變亂)의 강력한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인(眞人)의 실체가 해도(海島)에 숨어있던 저항집단과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본 고성훈의 『조선 후기 해도기병설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1997)이라는 연구성과가 있다.

동학(東學)과 남조선(南朝鮮)신앙

김상기(金尙基)의 『동학(東學)과 동학난(東學亂)』(1975)을 보면, 동학군은 옛날부터 전해오던 공을(弓乙)과 진인(眞人) 사상을 동학군의 전쟁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사용했다. 따라서 전봉준(全琫準, 1855 - 1895)은 동학군들 사이에서 진인(眞人)으로 믿어지기도 했다.

최수정은 수운(水雲)이 『필법(筆法)』에서 “상오국지목국(象吾國之木局)하니 수불 실어삼절(數不失於三絶)”이라고 말한 것이 교운(教運)이나 국운(國運)을 삼절관(三絶觀)으로 보았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상은 이씨(李氏) 왕조의 국운이 세 번 끊긴다는 『정감록』의 영향이라고 평한다.

『정감록』의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남(南), 남해(南海), 남도(南島), 남해도(南海島)에서 진인(眞人)이 출현하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조선(南朝鮮)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비결서로는 『정감록』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격암유록(格庵遺錄)』의 「가사총론(歌辭總論)」에 비로소 “남문복기남조선(南門復起南朝鮮)”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다만 『정감록』에 피난처로 언급되고 있는 십승지(十勝地)가 주로 남쪽 조선에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남조선이라는 의미가 상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비결서의 글귀에서 유추된 다양한 믿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록상으로 남조선신앙의 실체가 확인되는 사건은 동학(東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893년경에 무장(茂長), 영광(靈光), 정음(井邑) 등지에 거주하는 몇몇 동학도들이 계룡산(鷲龍山)에서 개국(開國)할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탁의 『한국종교사에서의 중산교와 민간 신앙의 만남』(2000)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들은 정부의 관료조직을 본떠 독자적인 관

직을 임명했고, 무기와 화약을 구해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일을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에 그들이 “평산대전에 가서 남조선(南朝鮮) 정씨(鄭氏)를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김개남

또한 동학군을 이끈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개남(金開南)의 원래 이름은 김기범이었었는데,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그의 손에 ‘개남(開南)’이라는 두 글자를 써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명(改名)했다고 전한다. 개남(開南)은 “남조선을 개벽(開闢)한다.”라는 뜻이다.

고종 31년(1894) 9월의 동학군 2차 봉기 때 김개남은 비결서의 ‘남원에 49일간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주력부대인 전봉준의 군대와 합류하지 않고 부대를 움직이지 않았을 정도로 비결신앙에 심취했던 인물이었다. 아마도 그는 “남(南)에서 진인(眞人)이 출현한다.”라는 비결을 자신에게 맞추어 해석했던 것 같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만큼 널리 알려지고 믿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동학혁명운동 관계 기밀문서 제90호에 보이는 고종 31년(1894) 5월 초의 공조 기록에 “동도대장군(東道大將軍) 이씨(李氏)가 남조선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동도대장군은 동장사(童長士) 이복용(李福用)인데, 그는 천문지리에 통달하여 조화(造化)를 마음대로 부리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리고 『동학난기』 하권 중범공조(重犯供草)를 보면, 고종 32년(1895) 음력 정월 해주부(海州府)를 공략하려던 동학여당(東學餘黨)은 “해도중(海島中) 실정(實鄭)이 즉위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11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 불경(佛經)을 가리켜 대장경(大藏經)이라 한다. 대장경이란 비밀히 감춰져 있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 비밀이란 무엇에 대한 비밀인가? 여래(如來)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므로 여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장경(大藏經)을 푸는 열쇠가 된다. ...

(지난호에 이어서)

《열반경 권 2(涅槃經 卷二)》

汝今遇는 不法寶藏 不應取此 虛偽之佛 여금우시 불법보성 불응취차 허위지불
네가 이제 이 불법의 보배성을 만났다 하나 응당히 이를 얻은 것이 아니요 헛되 고 거짓된 것을 취한 바이다.

譬如商主 遇眞寶藏 取諸瓦礫 而便環家 비여상주 우진보성 취제와력 이면환가
비유하자면, 어떤 상인이 보배성을 만

났으나 얻은 것이라곤 기와와 자갈을 주워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汝亦如是 值遇寶藏 取虛偽物 여역여시 치우보성 취허위물
너희가 또한 이와 같다. 보배성을 만났으나 헛되고 거짓된 물건을 취했느니라.

汝諸比丘 勿以下心而生知足 여제비구 물이하심이생지족
너희들 모두 비구야, 반드시 하심(下心)하여 내가 이만하면 아는 것이 족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誰身得服 袈裟染衣 其心猶未得染 大乘清淨之法 수신득복 가사염의 기심유미득염대승정정지법
몸은 비록 가사(袈裟)를 물들여 입었지만 그 마음은 아직 청정한 대승의 법에 물들지 않았다.

雖行乞食 經歷多處 初未曾乞 大乘法食 수행걸식 경력다처 초미증걸 대승법식
비록 많은 곳을 지나 다니며 걸식을 했으나 처음부터 아직까지 대승의 법을 얻지는 못하였다.

誰除鬚髮 未爲正法 除諸結使 수제수발 미유정법 제제결사
비록 머리는 삭발을 했으나 정법을 행하지 못했으며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못했다.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림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汝諸比丘 今當眞實教勅汝等 여제비구 금당진실교칙여등
너희들 모든 비구야, 이제 마땅히 진실로 너희들을 교칙하리라.

我今現在 大乘和合 如來法性 眞實不倒 아금현재 대승화합 여래법성 진실부도
내가 이제 대승이 화합함을 나타낼 때 여래의 법의 성품은 진실하여 넘어지지 않는다.

是故汝等 應當精進 攝心勇猛 拔諸結使 시고여등 응당정진 섭심용맹 발제결사
이런 고로 너희들은 응당히 마음을 잡아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모든 묶이고 맺힌 것을 뽑아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罪)와 업보에 묶이고 얽혀 한이 뿌리 깊은 것을

말한다. 그 소굴에서 벗어나야 한다.

諸比丘 譬如大地 諸山藥草 爲衆生 用 제비구 비여대지 제산약초 위중생용
모든 비구야, 모든 도를 구하는 자들아, 비유하자면 대지와 모든 산에 약초와 같아서 중생이 쓰는 바가 된다.

我法亦爾 出生妙善 甘露法味 而爲衆生 種種煩惱 病之良醫 아법역이 출생묘선 감로법미 이위중생 중종번뇌 병지양양의
내 법이 또한 그러하니 묘하고 선한 감로법의 맛이 나온다.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여인의원이 된다.

我今當令 一體衆生 及以我子 四部之衆 悉皆安住 祕密藏中 아금당령 일체중생 급이아자 사부지중

실개안주 비밀장중

내가 이제 마땅히 모든 중생과 또한 나의 아들이 되는 4부 대중 등 모두 이 비밀히 감춘 가운데에 안주케 하리라.

위의 구절에서 ‘내가’란 말하는 주체가 되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미륵여래를 빗댄(依)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묘하고 선한 감로법을 설하지 못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비밀장의 가운데에 편안히 머물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4부 대중이란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니(優婆尼)를 가리키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 승려와 여자 승려,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를 말한다.

我亦不當 安住是中 入於涅槃 아역부당 안주시중 입여열반
나 또한 그 비밀장 가운데 들어가 안주하여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열반에 들어간 자가 없었으며 석가모니 자신도 열반에 들 수 없다고 진술히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인즉슨 보살마하살(미륵여래)에 의해서 비밀장에서 말하는 감로의 정도(正道)가 나와야 비로소 열반이 있다는 말이다.

何名爲祕密之藏 猶如伊字三點 何명위비밀지장 유여이사삼점
무엇을 이름해서 비밀장이라 하는가? 비유하자면 이(伊)자 삼점(三點)이다.

이(伊)자란 무엇인가. 이(伊)는 물이름이라고 나와 있다. 물이 흘러가는데 위로 부터 흘러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 바다에 다다른다. 결국 종착지는 바다가 된다.

왜 이(伊)자를 썼는가. 중국 하남성(河南省) 노씨현(虜氏縣)에 웅이산(熊耳山)이라는 산이 있다. 그곳으로부터 동북쪽으로 물이 흘러서 이양강(伊陽江)이 된다. 다시 낙양강(洛陽江)을 거쳐 낙수(洛水)란 세번째 여래를 뜻한다. 마치 강의 상류와 중류가 있어야 강이 이루어지듯이 세 번의 여래가 있어야 여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若菟則不成伊 약병즉불성이
만약 세 분이 함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伊)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 세 분이 함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伊)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강의 상류와 하류를 서로 갖다 붙이지 못하는 것처럼 세 번의 여래가 함께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다에 이르는 것은 강의 하구(河口)이듯 모든 중생을 구원할 미륵부처님은 세 번째 사람이 된다.

終亦不成 如摩訶薩羅面上三目 중역불성 여마혜수라면삼삼목
비록 세 분이 합쳐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세 개 있는 것처럼 한 분 속에 세 분이 합쳐져서 삼신일체를 이룬다. (계속)*